

# '心外無佛' 내 인생의 주장자

## 산문박의 禪

통문관 대표 이겸로翁

### 빛바랜 고서와 동고동락 70여년 小食·편안한 마음가짐 '건강 비결' '직지심경' 등 고찰자 연구 소장도서 1만여권 도서관에 기증



이겸로 대표가 소장한 고서들을 읽고 있다.

옛 것은 오늘을 낳는다! 그윽한 역사의 향기는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 소중한 전적(典籍)들이 외적들에 빼앗기다시피 마구 유출되어 나갔고, 또는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동안 민족 문화유산이 막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자취를 간직하려는 보이지 않는 수집가들에 의해 흔적이거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까지 70여년을 오로지 빛바랜 고서와 함께 살아왔다. 반세기 넘은 세월동안 보배로운 우리 옛 책을 찾아내는 수집가요, 2만권 넘게 간수하고 있는 장서가로 현역 생활을 해 왔다. 어디 그런인가. 어려운 옛 전적을 현대인들이 알 수 있게 풀어내는 서지(書誌)화자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고려때의 <직지심경>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계미자(癸未

## "옛책 통해 선조들 정신 배우고 탐욕도 녹여요" 6·25뎌 고서 80권 짚어지고 피난 '평생 책사랑'

고서집 '통문관(通文館)', 70여년의 세월동안 통문관을 운영해 온 이겸로翁(89)은 옛 것을 오늘에 남는 '통문관 할아버지'로 통한다. '8·15 광복, 6·25를 겪으면서 쏟아져 나온 국보급 고서, 자료들이 외적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었지. 고서발굴에 뛰어든 게 된 직업적인 통기가 된 셈이야. 배운 것이 미천해 역사의 중요성을 뒤흔킬 수는 없었지만, 허허, 울레로 춘추 여든아홉, 미수(米壽)를 남긴 이겸로는 그 허허로운 웃음 속에 이미 세상을 꿰뚫고 있었다. "고서를 취급하면서 옛 선사의 한마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심외무불(心外無佛) 축목개불(齋曰皆佛)'이라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바로 부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마음먹기에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내 인생을 버려낼 수 있는 주장자였지. 그래서 말인데 남들이 나를 두고 '역사의 파수꾼'이나 '국학발전의 전령'이니 하는 거창한 말들은 단지 그 가르침 하나만으로 살아온 나를 부끄럽게 할 뿐이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던가. 그가 짧게 내뿜은 웃음 속에 배어나온 선격(善蹟)의 힘을 가식없는 하심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겸로는 16살에 책방 점원을 시작 9년만인 1934년 통문관의 전신인 금향당을 차린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70여년을 오로지 빛바랜 고서와 함께 살아왔다. 반세기 넘은 세월동안 보배로운 우리 옛 책을 찾아내는 수집가요, 2만권 넘게 간수하고 있는 장서가로 현역 생활을 해 왔다. 어디 그런인가. 어려운 옛 전적을 현대인들이 알 수 있게 풀어내는 서지(書誌)화자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고려때의 <직지심경>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계미자(癸未

직을 대하다보면 옛사람의 정신을 배우고 마음을 맑게 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그 순간만큼은 탐욕이 붙는 놋독 말끔히 사라지거든. 사소한 욕심이란 가장잡은 일이지. 고서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일게 하지. 그 즐거움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 다소 집착하기 힘든 경지를 설명하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와 전적과의 인연은 골짜기였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고서가 나올 건 거의 다 나왔는지 요즘은 통고서서 안나와. 읽는 사람도 드물고"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겸로는 "도서관들이 책을 더 많이 사들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도 강조했다. 아직도 하루에 한번은 통문관에 나와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겸로는 건강비결로 소식(小食)과 편안한 마음가짐을 꼽으며 "일에 집중하면 정신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 1만여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인 그의 고서에 대한 애정어린 손놀림이 평정심으로 전위되고, 한철 안거를 마치고 하산하는 수행승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도필선 기사

###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문**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하고 믿음이 있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최철상·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답** 쉽게 말해서 나무가 제 뿌리를 믿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주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든든히 버틸 수 있는데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다른 나무의 뿌리를 믿는다면 그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믿을 대상이 있어서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제 뿌리, 말하자면 자기의 근본자리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본 성품자리에서 보면 믿는 자도 믿을 대상도 믿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주인공이요 우주요 그대로 공인될 뿐 믿고, 무슨 대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 생각 그대로가 부처요 주인공의 나름인데 말입니다. 비유해서 나무가 뿌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나무 줄기나 가지나 잎이 뿌리와

다. 그렇게 사무치게 믿으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게 바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덕의 어머니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깨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이전에 깨달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어서어서 깨닫기는 해야 했는데 웬지 공부가 더딘 것 같고, 갑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뿌리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통해 깨닫고자 하는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부처가 틀이 아니요 내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을 사무치도록 믿지 못하고서야 누가 대신 알게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사무치도록 믿으면 이미 그것은 틀이난 도리를 알았다는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다고 했지' 하는 것은 사무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야 경전을 보면 어디에서나 다 나오고 역대 조사님들도 말씀마다 누누히 강조하셨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머리로 그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질문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아문선관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물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하 아닐뿐 믿고 말고 할 것도 실은 없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부처요 내가 곧 우주의 점을 모르고 따로 믿을 대상을 찾고, 믿을 대상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문제는 바로 이 모른다는 사실, 즉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 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지금의 이 나는 본성의 나뭇잎이며 자신의 근본성품은 우주만물과 틀이 아니어서 한마음으로 통하며 서로서로가 직결이 되어있다고 가르쳐주어도 자꾸만 편향을 부리고, 자신의 근본성품이 곧 부처요 따라서 나를 있게한 근본자리 주인공이 만물의 뿌리요 우주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고해도 오히려 긴가민가 하면서 따로 믿을 대상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게 내 뿌리가 곧 우주의 뿌리요 부처자리이다 하는 점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하면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밖에 형상을 믿고 부처다 관음이다 하는 남이다 하는 이름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와 부처가 틀이 아니요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다르지 않아 한마음임을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만 무엇이 철석같은 것이냐. 얇은 나 서너 자나 깨나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사무치게 믿는 것인

믿음은 첫째도 실천이요 둘째도 실천입니다. 누가 대신 일러줄 수 없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거수 일투족에서 그런 믿음이 떠나지 않아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그런 정도에 이르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되면 무릎을 치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알게되니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음식점에 가서 자랑면을 직접 먹어본 사람하고 말로만 들은 사람하고 같을수가 없겠지요.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명을 하시고도 나는 한 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직접 실천하지 않고 말에 걸려서 말로써만 이해하려 할까봐 그러셨던 것입니다. 고로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실천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불법을 선포하고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지능이 옛날과 달라서 웬만한 일들은 애써 참구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아는 게 많습니니다. 따라서 예전 사람보다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가 더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알음알이만 늘어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믿음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 활성탄 쌀로 부처님께 공양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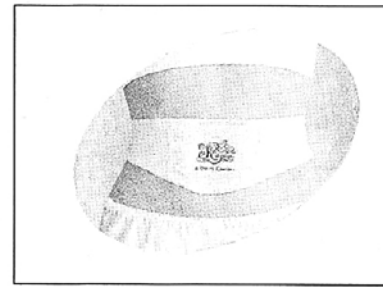
-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 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지 않아 백화점과 미국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 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 드립니다.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사랑 땅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생산 농민을 대리하는 안용식 합장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하십시오!

-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띠를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 내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있다. (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고통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